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6년도 표어 ◎

“성숙한 교회를 이루자” (엡4:13)

◎ 생활지침 ◎

섬기는 생활
주는 생활
경건한 생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18일간의 홍해작전 - 오늘은 승전감사의 날

기도의 행진은 계속된다

“은 성도가 함께 기도의 벽돌을 쌓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벽돌 한 장이 빠진 채 예배당이 지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18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다는 K집사의 고백이다. 이번 홍해작전 기간 중 기도의 폭과 깊이가 한층 증진되는 복을 받았다는 간증도 빠뜨리지 않았다.

오늘 찬양예배 시 96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번 홍해작전은 지난 6일 새벽 5시, 6백여명 성도들의 열띤 기도로 시작되어 18일 동안 이어지면서 연인원 6천여명이 참가하는 놀라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올해는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어 “기도로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또 말씀과 기도를 두 수레바퀴로 하여 7가지 공동기도제목을 채택했고 이를

위해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했다. 또 나라와 교회, 가정과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도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지난 금요일인 21일엔 금식이 선포되었다. 성도들은 이날 이사가 58장에 나타난 금식 기도를 모범으로 해 있는 동안 금식했다. 참여 성도들은 교회의 기도제목과 아울러 개인과 가정의 홍해가 갈라지도록 간구를 드렸다.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 합심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이날 금식으로 따로 구분된 금식헌금은 승전감사예배 시 드릴 예정이다.

이번 홍해작전에 참가한 성도들은 “교회행사로 열렸던 96홍해작전은 오늘 막을 내리지만 실질적인 홍해작전은 1년 내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기도의 열기가 새 예배당을 헌당할 때까지 계속될 것은 분명하다.



96홍해작전 기도제목

1.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옵소서.
2.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지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이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게 하옵소서.
3. 불길같은 성령이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소서.
4.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지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옵소서.
5. 삼위일체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되심 같이
우리도 하나되게 하옵소서.
6.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지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7. 구원의 주님이시여!
우리로 주의 전을 세우도록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 짓는 일에 교회학교 학생들도



교회학교에서도 새 예배당 건축헌금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익명을 원하는 성도가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저금통을 기증했다. 건물을 연상할 수 있는 집 모양에 새 예배당의 투시도를 인쇄해 넣은 이 저금통은 지난 주일 탁아부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교회학교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배부되었다. 교회학교별로 모은 건축헌금은 9월 첫 주일(1일)에 바치기로 하였다.



이 저금통이 필요한 성도는 오늘 I·II·III부 예배 후 교회 앞마당에서 받을 수 있다.

창세기
강해



하나님의 무기

(창세기 42장 1 ~ 5절)

이종운 목사

미국 정부에는 연방양심기금 (Federal Conscience Fund)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제대할 때 부대물건을 가져온 것이나 우표를 제대로 붙이지 않아 배달이 되지 않고 집배원이 뜯어 가진 소포, 탈세한 것, 공무원의 공금을 유용한 것 등을 후일 다시 돌려보내준 것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호텔 투숙객이 객실 요금에 포함되지 않은 수건을 가방에 넣고 왔는데 그 수건을 볼 때마다 양심의 소리는 '도적놈'이라고 외쳐대는 바람에 그 수건을 다시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을 해시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해시계는 해가 찬란히 비칠 때엔 제구실을 하지만 밤에는 시계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빛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주셔야만 우리의 양심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인간 양심은 환경과 처지와 시공을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면 우리 양심의 해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1. 요셉의 형들의 잠든 양심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끝나고 그의 열 명 형제들의 양심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판 후 형들은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거듭나야 할 양심에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어두운 양심에 빛을 비춰주셨는지를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양심은 이미 큰 상처를 받았고 휘청거리며 괴로와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에는 "교수형을 집행하는 이의 집에서는 밧줄에 대한 말은 하지 않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왜 너희들은 서로 보고만 있느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라"(1절)고 했을 때 '애굽'이라는 지명만 들어도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의 가슴은 뜨끔했을 것입니다.

일찍이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 증거물로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요셉의 이야기는 더 이상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말만 나와도 그

들끼리는 소름끼치는 경계를 피차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입으로부터 애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루우벤, 시므온, 레위, 스불론...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보며 입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익스피어는 "양심은 우리 모두를 비겁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앞에서 양심의 외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우물거리게 된 것입니다.

2. 기근은 양심을 깨운 하나님의 무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형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는 대신 그들은 죄의식으로 인해 서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 양심은 아직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잠든 상태이며 병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이라는 말을 듣자 그들의 죄책감은 작동했고 회개치 못한 악이 소리쳐 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들 입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양심을 깨우시고 그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번째 사용하신 무기는 기근이었습니다. 물질적 궁핍을 통해 외형적으로 만족해했던 가나안 땅에서 저들을 몰아내고 애굽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땅은 형들에게 있어서 지상에서 갈 수 있는 마지막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요셉을 만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물질을 빼앗아가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기근은 물질적 기근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근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암8:11).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마4:4).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깨우려고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3. 기근이 하나님의 무기가 된 포하나의 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경제적 압박과 고통이 올 경우 우리는 하나님

의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회개할 것을 찾아 아버지께로 돌아만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주시고 기쁨으로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랜 고난 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잊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아들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자기 동생에게 행한 악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요셉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한 후에 비로소 과거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임했던 기근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계획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궁핍은 결코 유쾌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무기가 된다면 오히려 축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 잠든 양심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 순례자 컬럼 ✦

"사랑의 연습"

어린시절에 남을 위해 작은 희생과 봉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이가 정말 봉사할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효과있게 봉사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사도 바울이 경건을 연습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연습해야 한다. 물론 젊은 이들의 에로스를 연습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를 모독하는 행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는 사랑할수록 더 크고 넓고 깊고 긴 사랑을 하게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을 위한 희생은 힘들고 괴롭고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진정 봉사와 희생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를 알게 된다. 사랑의 연습을 통해 우리 인격전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자.

홍해작전 참가기

하나님께서 제 불기를
한 대 치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19일, 손자의 유아세례식을 마치고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96홍해작전
첫날,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나
와보니 제 자동차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얼마
전, 집 앞에 세워두었던 차를 밤새 트럭이 받아
폐차했고, 그날 잃어버린 차는 남편에게 새로
받은 지 얼마안된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차를 두대나 해먹었으니(?) “이제 새벽기도회

걸어서 다니라”고 하는 꾸중섞인 남편의 말에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홍해작전 새벽기도회는 첫날만 의무감
에 참여하려 했었습니다. 집 앞에 세워둔 차가
망가진 이후 차고에 차를 넣어놓다보니 새벽
에 대문을 여닫는 번거로움도 있었고, 일이 바
쁘고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여력이 되면 참

가하려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막상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정말 걸어서라
도 끝까지 참여해야겠다는 오기와 같은 새로
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걸어서라도 이 홍해를
건너리라!’

자동차를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교구식
구들이 가만 있질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전화벨을 울려 깨워주고, 집
앞까지 데리러 오고, 새벽기도회가 끝나면 집
앞까지 데리러 주고... 여러 사람이 함께 타다
보니 안 나갈 수도 없었고, 새벽마다 나오다보
니 은혜의 단비가 제게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
습니다. 어쩌면 이리 세밀히도 준비하셨는
지... 다락방 식구들과 날마다 만나는 좁은 차
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습
니다.

4면에 계속➔

6·25 제 46주년을 맞으며

북한선교주일 공동기도문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주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 죄악과 죽음의 어둠 밤을 지나게 하시고 새
아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단의 비극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 민
족을 지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통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 모든 열망과 이 민족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
나님, 오늘 저희 민족에게 내려주신 분단이라는 시련 속에서 저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저희는 지난 반세기동안 분단체제 속에서
살아오면서 저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깊고 오랜 증오와 적개심
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 분단 때문에 저희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
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
은 피를 나눈 저희의 동포들을 미워하고, 속이고, 살인하였고 저희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이를 정치와 이념의 이름으로 정당화하
려는 이중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서로 그리워하게 하시며 하나될 날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주위의 죽음의 세력들은 우리 민족을 죽음의 무덤
안에 가두어 놓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 시작되는 새역사와
새창조를 믿게 하셨습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이 어둠이 영원히 지속
된다고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새 아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던 자를 다 없애버리고 절름발이를 고쳐
주며 길 잃은 자들을 찾아내어 고국으로 데려오리라” 말씀하신 하
나님, 지금도 동족상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당신의
평화를 허락하소서. 우리를 겨냥하고 있는 각종 핵무기가 철거되고
온갖 전쟁체제가 끝나며 당신이 영원히 왕노릇하는 참 평화, 참 평등,
참 자유의 그날이 어서 오게 하옵소서.

수해를 입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동포들에게 따스한 사
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민족의 고난을 부
활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굿어보시고 평화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분단과 증오
로 얼룩져 만신창이가 된 우리 모두의 몸과 영혼에 새 살이 돌아 건강
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북한에 교회가 과연 있을까?

북한 헌법 제 64조에는 “외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문제에 종교가
개입하지 않는 조건 아래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
나 현재 북한에는 88년에 건립된 평양 봉수교회와 92년에 건립된 칠골교
회 두 곳이 있을 뿐이며 북한교회의 신도들은 대부분 당원으로서 당국으
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을 허용받은 사람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 교회에
서 이뤄지는 설교도 주체사상과 접합된 내용이며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
경·찬송가도 교회외부로 반출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교계인사들이 밝히는 바에 따르면 북한의 기독교인 수는 1만명 정
도. 그들은 5백 여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점조
직 형태로 3만 여 명의 성도가 있어 필사본 성경과 구전찬송으로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그들은 어쩌다 성경을 한 권 입수하면 수
십명이 돌아가면서 베껴적고, 어른들이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부르는 찬
송을 한두곡씩 받아 적어 외워 부르고 있다.

6·25 제 46주년을 맞으며

이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
하면서 최근 급변하는
북한의 정황과 통일
후 본격화될 북한선
교를 위해 북한과 북
한교회의 실태를 정
확히 파악하고, 적절
한 전략을 수립하며 사
랑과 관심을 가지는 일이 지
속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지하교회 신도들이 손으로 쓴 성경과 찬송가

◀ 3면에서 계속 이렇게 본의 아니게(?) 홍해 작전에 빠짐없이 참가하면서 비로소 남편이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처했을 때, 아들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 주셨지만 요즘은 내 기도는 중언부언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 기도하는 일에 안일하던 저의 불기를 한 대 치셨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새벽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부르짖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평안이 넘쳤습니다. 그

리고 차를 훔쳐간 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교회 앞에서 가져갔으니 그도 언젠가 우리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홍해작전 5일째 되던 날, 청담동 부근에서 잃어버린 차를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다. 범죄에 쓰이지 않아 다행이었으나 차는 몹시 상해있었습니다. 그러나 잃었던 것을 인하여 얻은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19일에 자동차의 수리가 끝나고 처음 승차

자가 바로 그날 유아세례를 받은 손자였음이 또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불어 넣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전을 짓고 자 기도하는 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와 결심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면서 너무나도 세밀하게 예비해 놓으시고 감당키 어려우리만치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길동무

기도로 자민 나라

신자에게 기도는 생명이다. 따라서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무력했다면 그것도 기도가 없기 때문이고 신령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애 귀를 기울이신다.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은 유지되지 아니하며 기도 없는 행실은 죽은 나무의 잎사귀와 같다.

영적 전쟁을 날마다하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 주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으며 승천하신 후 지금도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중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이루고 성화된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마다 기도해야 한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이마다 기도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야 한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닥친 환난을 극복케 하며 믿음을 온전케함으로 모든 근심과 궁핍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민족과 조국을 위하여 함께 모여 밤을 새워 간구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타개한 경험이 어찌 한두번이리요.

기도는 폭풍을 잔잔케 하며 도끼를 물 위에 뜨게하며 태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성난 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힘이 있고 헛된 근심과 천박한 욕망 그리고 육신적 질고를 정복할 수 있는 명약이 된다.

기도는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신령한 통로가 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언약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손이 된다.

할머니의 작은 기도가 우리나라의 미사일이요 함대며 전투기이다. 이제야말로 무릎 꿇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다. 나라를 위하여!

“주여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글은 이종운 목사가 6월 16일자 조선일보 종교면에 기고했던 것입니다.)

■ 목회자·교우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고신대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측) 하기 목회자세미나에서 “성공적 목회를 위한 임상적 접근”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한다. 이번 세미나는 고신측 목회자를 위한 재훈련 프로그램으로 27일(목) 오전 9시부터 12시 10분까지 부산 고신대 강당에서 열린다.

* 김광신 장로(11교구, 청년부 부장)는 (주)자코인터내설과 (주)자코엔드월드여행사의 부사장으로 취임하여 6월 29일 취임감사예배를 드린다.

승전보고

목에 물혹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은 전완순 집사(2교구 영동 2다락방). 이번 홍해작전에 참가하면서 “기도는 능력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씀을 믿으며 병나기를 위하여 힘써 간구했다. 그런데 21일(금) 수술날짜를 받기 위해 검진을 해 보니 병은 자국조차 없이 치유되어 있었다. 가족들도, 의사도 모두 놀랐다. 전 집사는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셨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도해 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승전보를 전해왔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4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할 수 있도록
2.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3.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
4. 투병 중인 성도들과 입원 중인 파블로 체코 선교사를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